



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



서울 사는 김주부의  
달걀 덜 쓰고  
설 차례상 차리기  
도전!

달걀을 비롯한  
설 차례상 비용이  
작년보다  
소폭 상승할 것으로  
보입니다.



그래, 결심했어!  
이번 설에는  
달걀 없이 차례상을  
차려 보는 거야!



김주부



엄마, 차례가  
뭐예요?




## 차례란?

'차를 올리는 예' 라는 뜻으로 차 대신 주로 술을 쓰고 있습니다.  
살아있는 사람들이 즐기는 명절로 조상들과 함께하는  
약식제사를 말합니다.

출처: 국립민속박물관 한국민속대백과사전





달걀 없는 부침을 위해  
녹두전, 메밀전을  
올려야지~  
녹두와 메밀은 건강에도  
좋으니까!



아버님! 올해는 달걀 없는  
차례상이예요. AI 발생으로  
달걀이 부족해서 달걀 없이  
녹두전을 부쳐봤어요.



차례상은 메뉴가 아니라 정성이다.  
정성이 들어가면 조상님들도  
좋아하실거다! 그리고 이 배추 메밀전  
진짜 맛있구나. 허허허

이번 설날,  
달걀 없는 상차림으로 차례도 지내고  
가족들 건강도 챙기세요!

